

국내 제지업계

미개척 수출시장 진출, 내수 감소세 극복

1. 서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포장폐기물은 마치 환경오염의 주범인 것처럼 취급되고 있다. 포장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고 있음에도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깊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포장폐기물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오인받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소비자들, 즉 일반인들이 가진 포장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포장재 중 환경친화적이라는 의미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지류 포장재이다.

물론 펄프·제지산업이 목재를 원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의 파괴자라는 오인과 함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펄프의 경우는 최근 IMF 한파에 많은 문제제기를 낳고 있기도 하다.

환경친화적이라는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지류포장재의 경우 농산물포장재, 상자, 종이포장 봉투, 완충재, 음료카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 이후 분리수거의 용이성 또한 인정받게 되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포장재이다.

2. 제지업계 현황

올해 제지업계의 가장 큰 특징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제지의 원부자재가격의 폭등으로 제지의 판매단가가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지는 원자재 수입의 어려움으로 생산물량이 줄고, 또한 국내 수급현황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95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해 온 종이의 생산은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이 중 골판지와 백판지를 중심으로 한 수출용 포장재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것이 눈에 띈다.

지류별로 보면 신문용지가 12만4천톤이 생산되어 작년동기에 비해 약 1만톤이 감소했고, 백상지와 아트지는 각각 5만6천톤 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장지, 기저귀 등 위생용지의 경우 꾸준한 수요의 증가로 지난 해보다 약 2천톤 늘어난 2만9천2백여톤이 생산돼 주요 지종 중 유일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같은 지류의 생산감소는 예년의 절반수준 밖에 못 미치고 있는 국내 시장의 수요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겠다.

이에 제지업계에서는 국내 수급보다는 수출을 통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했는데, 작년 신문용지가 중남미 쪽의 수출로를 개척한 데 이어 97년말부터는 아트지의 대 중남미 수출이 구체적으로 추진, 98년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 인쇄용지업체들은 97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와의 아트지 장기공급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고 그간 미국 등지에서 생산되는 무관세혜택을 받는 종이와 품질이 우수한 유럽산과의 경쟁력에서 보여왔던 약세를 탈피하고 있다.

한국제지의 경우 최근 브라질과 멕시코에 40여만달러어치(500톤)의 아트지를 선적하는데 성공했다.

한국제지 측에 따르면 장기공급을 이끌어낼 경우 연간 5천톤 이상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고부가가치 지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높아지면서 그간 수출 미개척 지역이었던 중남미와 유럽 등지에도 본격적인 수출활로가 열린 것이 원인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무림제지의 경우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칠레 등지에 올 하반기부터 월 1천여톤의 아트지를 수출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신무림제지의 경우는 남미 지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대형 제지상인 트리콤사를 통해 남미지역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인쇄용지업체들의 경우 중남미 시장에 대한 수출이 본격화될 경우 내수시장의 부진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으며 전체 수출물량도 대폭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국내 내수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수출의 지표로 여겨졌던 포장용 판지의 경우 예년보다 그 수요가 크게 감소해 전년의 80% 수준인 40만톤 정도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으며 수출량의 경우도 전년에 비해 많은

수의 감소량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제지업계의 경우 생산량과 내수물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98년에 들어서며 수출물량의 경우 156.7%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업계에 청신호를 울리고 있다.

3. 결론

올해 제지업계는 IMF 한파를 넘기면서 가장 많은 굴곡을 겪은 업계 중의 하나일 것이다.

우리 생활의 전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지의 경우 그 사용용도가 매우 다양한 것이 사실인데 지난 해 말 급작스러운 경제침체에 의해 가격이 상승하면서 내수시장에 많은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지업계는 국내 내수의 혼란의 어려움을 고부가가치 지종에 대한 수출활로 개척으로 극복해 가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경제불황을 이겨내는 길은 수출 뿐이라는 산업계의 공언을 현실화해 냄으로써 국내 산업의 제기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지산업의 경우 환경친화적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제지가 적용되는 모든 업계는 물론, 특히 포장재 쪽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분리수거가 철저히 시행된다면 지종별로 재활용이 용이하고, 매립 시에도 다른 포장재에 비해 쉽게 분해되는 등의 장점은 분명 제지가 가진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활용시 표백용 약품이 섞여 나오는 폐수에 대한 문제점과 펄프 등 원자재 수입에 따른 외화출혈의 문제, 그리고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는 삼림파괴에 대한 문제제기 등에 대한

(표) 1997년도 국내 펄프 및 지류의 생산·출하·재고 현황

종류	구분	전년말재고	생산		내수		수출		재고		잔여량	
			량	단위(%)	량	단위(%)	량	단위(%)	량	단위(%)	량	단위(%)
펄프	BKP	84,877	393,566	99.3	422,416	128.4	-	-	422,416	128.4	56,027	66.0
	GP	-	69,416	82.4	69,416	82.4	-	-	69,416	82.4	-	-
	TMP	-	127,187	92.0	127,187	92.0	-	-	127,187	92.0	-	-
펄프 합계		84,877	590,169	95.4	619,019	112.2	-	-	619,019	112.2	56,027	66.0
신분용지	권현지	38,578	1,559,962	122.1	1,298,203	109.2	243,667	423.0	1,541,870	123.7	56,670	146.9
	평판지	4,450	32,306	118.0	33,140	139.4	-	-	33,140	132.9	-	-
소계		43,028	1,592,268	122.0	1,331,343	109.8	243,667	414.6	1,575,010	123.9	60,286	140.1
인쇄용지	백상지	47,443	555,281	106.5	514,146	109.6	49,884	132.0	564,030	111.2	35,694	81.6
	중질지	1급 16,609	120,728	87.1	121,300	95.8	-	-	121,300	95.8	16,037	96.9
	2급 9,575	83,167	83.6	88,820	96.3	-	-	88,820	96.3	3,922	41.0	
계		26,184	203,895	85.6	210,120	96.0	-	-	210,120	96.0	19,959	76.2
	기타	6,115	76,350	105.9	73,761	104.5	1,422	122.0	75,183	104.8	7,282	119.1
소계		79,742	835,526	100.5	798,027	105.2	51,306	131.7	849,333	106.5	65,935	82.7
종	편면아트지	9,463	82,236	112.2	49,228	101.0	34,316	129.1	83,544	110.3	8,155	86.2
	양면아트지	50,300	971,441	120.3	472,945	108.2	492,606	133.1	965,551	119.5	56,190	111.7
인쇄용지	코트지1급	-	-	-	-	-	-	-	-	-	-	-
	코트지2급	881	9,783	130.6	4,800	124.6	5,136	167.0	9,936	143.4	728	82.6
	경량코트지	596	6,140	82.4	5,309	81.5	-	-	5,309	67.6	1,427	239.4
	경면광택지	1,105	24,786	126.9	15,591	97.5	5,969	156.6	21,560	108.8	4,331	391.9
	엠보스지	288	3,995	187.6	3,431	143.0	158	718.2	3,589	148.2	694	241.0
	기타	5,415	71,245	133.4	62,395	118.0	9,421	279.6	71,816	127.7	4,844	89.5
소계		68,048	1,169,626	120.5	613,699	108.1	547,606	134.2	1,161,305	109.0	76,369	112.2
박엽지	권현지	-	-	-	-	-	-	-	-	-	-	-
	타이프라이터(COPY)용지	-	-	-	-	-	-	-	-	-	-	-
	인디아지	425	7,856	176.3	7,766	192.7	-	-	7,766	192.7	515	121.2
	기타	4,891	67,697	128.4	68,539	140.9	62	163.2	68,601	141.0	3,967	81.5
소계		5,316	75,553	132.1	76,305	144.9	62	163.2	76,367	144.9	4,502	84.7
특수지	도화용지	440	4,168	144.7	2,658	172.2	944	89.0	3,602	138.3	1,006	228.6
	벽지원지	3,802	26,707	77.5	27,374	74.3	-	-	27,374	74.3	3,135	82.5
	기타	11,931	102,138	56.2	91,234	53.6	12,060	109.8	103,294	57.0	10,775	90.3
소계		16,173	133,013	60.7	121,266	58.1	13,004	108.0	134,270	60.8	14,916	92.2
이	노카본원지	3,553	13,826	229.8	11,915	230.0	605	-	12,520	241.7	4,859	136.8
	뒤(배면)카본원지	-	-	-	-	-	-	-	-	-	-	-
	감광지원지(경사권현지)	729	3,416	86.3	3,342	102.9	-	-	3,342	102.9	806	110.2
정보용지	PPC용지	13,207	121,524	122.0	125,556	134.4	151	62.4	125,707	134.2	9,024	68.3
	감열지원지	1,261	8,922	618.7	4,253	762.2	4,992	-	9,245	-	938	74.4
	컴퓨터용지	5,025	34,496	98.6	30,368	106.4	5,254	126.4	35,622	108.9	3,899	77.6
	기타	1,043	6,521	31.8	5,725	28.5	49	188.5	5,774	28.7	1,790	171.6
소계		24,818	188,705	113.4	181,159	120.0	11,051	235.5	192,210	123.4	21,313	85.9
위생용지	화장지원지	10,629	247,225	131.2	251,196	137.1	130	51.8	251,326	137.0	6,528	61.4
	생리용지	563	4,841	101.3	5,217	98.2	-	-	5,217	96.2	157	33.2
	타월용지	600	8,512	127.7	8,501	132.4	-	-	8,501	132.4	611	101.8

종류	품명	전년당량(톤)	생산	전년동기	내수	전년동기	수출	전년동기	계	전년동기	계	전년동기	
				대역(%)	대역(%)	대역(%)	대역(%)						
종이	위생용지	기타	230	71,580	65.9	71,660	66.0	13	-	71,673	66.0	137	59.6
	소 계		12,022	332,158	107.7	336,574	110.9	143	57.0	336,717	110.8	7,463	62.1
	미표백포장지	중포장용양면지	25,413	204,821	79.6	220,373	93.0	92	-	220,465	93.0	9,769	38.4
		일반크라프트지	34	10,118	93.4	10,089	92.6	-	-	10,089	92.6	63	185.3
		유선크라프트지	-	-	-	-	-	-	-	-	-	-	-
	표백지	계	25,447	214,938	80.2	230,462	93.0	92	-	230,554	93.0	9,832	38.6
		편광지	562	11,007	115.1	10,794	114.6	-	-	10,794	114.6	775	137.9
		봉투용지	33	771	99.9	712	92.0	-	-	712	92.0	92	278.6
	종이합계	기타	310	5,746	108.9	5,707	111.1	-	-	5,707	111.1	349	112.6
		계	905	17,524	112.2	17,213	112.3	-	-	17,213	112.3	1,216	134.4
		소 계	26,352	232,463	82.0	247,675	94.1	92	-	246,767	94.1	11,048	41.9
	종이합계		275,499	4,559,312	110.1	3,706,048	106.3	866,931	165.8	4,572,979	113.2	261,832	95.0
	지기용판지	백판지 1급	도공	5,507	39,047	100.5	11,235	70.2	27,934	104.8	39,169	91.8	5,385
비도공			-	-	-	-	-	-	-	-	-	-	-
계		5,507	39,047	100.5	11,235	70.2	27,934	104.8	39,169	91.8	5,385	97.8	
백판지 2급		도공	96,386	855,916	103.9	392,375	101.6	485,125	118.6	877,500	110.3	74,802	77.6
	비도공	5,836	31,726	70.6	29,581	72.0	186	51.0	29,767	71.9	7,795	133.6	
계	102,222	857,642	102.2	421,956	98.8	485,311	118.5	907,267	108.4	82,597	80.8		
소 계		107,729	926,689	102.1	433,191	97.8	513,245	117.7	946,436	107.6	87,982	81.7	
판지	다이너	크라프트라이너	-	-	-	-	-	-	-	-	-	-	
		슈우트라이너급	55,087	843,383	133.2	715,382	124.6	138,823	480.6	854,205	141.7	44,265	80.4
		슈우트라이너급	36,664	802,316	99.0	813,712	103.1	3,251	725.7	816,963	103.5	22,017	60.1
계	91,751	1,645,699	114.0	1,529,094	112.2	142,074	483.3	1,671,168	120.0	66,282	72.2		
소 계		97,639	2,498,355	109.6	2,327,716	107.5	195,777	266.5	2,253,493	112.7	72,501	74.3	
기타판지	황판지	3,729	12,509	58.1	14,959	69.5	37	-	14,996	69.7	1,332	35.7	
	색판지	-	-	-	-	-	-	-	-	-	-	-	
	아이보리판지	8,826	96,430	95.0	38,343	89.4	57,120	105.7	95,463	98.5	6,793	77.0	
기타합계	킵원지	3,258	51,257	114.0	46,891	105.9	1,396	551.8	48,288	108.4	6,227	191.1	
	조판지	229	493	16.9	715	17.2	-	-	715	172	7	3.1	
	기타	11,561	222,415	121.0	225,917	127.1	467	28.1	226,364	126.2	7,588	65.6	
소 계		27,603	380,190	108.1	326,825	112.5	59,020	105.5	385,846	111.4	21,947	78.5	
종이·판지합계		508,470	8,354,546	106.9	6,793,781	105.9	1,634,973	150.2	8,428,754	112.3	444,262	87.4	

주 1. 본 통계는 한국제지공업연합회 월말보고서에 의하여 집계되었으므로 수출량(출고기준)은 무역통계와는 다소 상이함.

좀더 설득력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환경친화적인 포장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제지가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환경친화적인 소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대중적인 포장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윤지는 기자